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한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

김수진(명지대학교 외래교수)

요약

1885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기독교내에서 율동, 제스처 등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승미 발레단을 비롯한 호산나 발레단, 박순자 선교무용단 등의 선교무용단체가 생겨나고 학술논문과 서적들이 발표되면서 선교무용의 전문화, 학문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선교무용은 예배의 도구이자 선교의 도구로 그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활용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교무용에 대한 이해나 지식, 학문화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선교무용은 일반무용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선교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고 기록된 바와 같이 선교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5)'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선교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무용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전력을 신체를 통해 형상화하여 표현하되 결국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전 과정과 표현이 쉽지 않은 않다.

무용의 표현방법은 어떠한 이야기 혹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순간 무용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 무용미는 내·외면적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교무용이 표현을 하기까지의 내면적 요소와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비움이다. 이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는 말씀과 같이 표현의 주체인 안무가, 무용수가 인간적인 자량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채움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기록 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한다. 셋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공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채워져 내면적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표현을 통해서 공명해야 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공명함으로 보이지 않는 전

력을 형성화 하여 공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는 비움, 채움, 공명의 순환이다. 박순자 교수는 선교무용인들을 춤추는 목회자에 비유하였다. 이는 선교무용을 할 때에만 순서를 위우고 연습을 하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신 채움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움, 채움, 공명이라는 요소의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상의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를 통하여 선교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들이 순복음적으로 준비되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 선교무용, 내면적 요소, 무용표현,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

I. 들어가는 말

1885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만 해도 기독교내에서 율동, 제스처 등의 춤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승미 발레단을 비롯한 호산나 발레단, 박순자 선교무용단 등의 선교무용단체가 생겨나고 학술논문과 서적들이 발표되면서 선교무용의 전문화, 학문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선교무용은 예배의 도구이자 선교의 도구로 그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활용성이 증가하는 만큼 선교무용에 대한 이해나 지식, 학문화에 대한 접근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선교무용은 일반무용과는 달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주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라는 영역을 벗어나면 선교무용이 성립되지 않는다. "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고 기록된 바와 같이 선교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명기 6:5)"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선교무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무용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전력을 신체를 통해 형상화하여 표현하되 결국 불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전 과정과 표현이 쉽지 않은 않다.

무용의 표현방법은 어떠한 이야기 혹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신체를 통해 드러낸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순간 무용미를 형성하게 되고 이 무용미는 내·외면적 요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교무용을 표현을 하기위한 내면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내면적 요소가 어떠한 구조로 표현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II. 선교무용에서의 표현

무용은 외면적 표현활동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고마아시 신지는 무용미가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외면적인 형식요소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외면적 형식요소는 내면적인 요소의 지지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마아시 신지, 1983, 48). 즉 무용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가질 때 신체라는 표현의 주제와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들이 외면적 형식요소들로 사상과 감정이라는 내면적인 요소의 지지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용은 내면적 요소의 발현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선교무용에 비추어 설명하자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보여지는 기독교인들의 사명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선교이며(박순자, 2004, 90)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는 무용이라는 도구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곧 선교무용이며(김수진, 2013, 83) 예배 그 자체의 행위가 곧 선교무용인 것이다(김수진, 2019, 60).

무용은 사람의 마음 속 깊은 심연으로부터 부흥이 올라오는 영적 활기를 표현해 주는 방법이다(실레스트르 스톨우버 2002, 87). 그러나 오늘날의 예술은 자기당착에 빠져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고 엘리트주의가 되어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서 절연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주장하면서 올바른 관점에서 예술은 영적 자원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줄 능력이 있는 선물이며 성경이 이를 승인해주고 있다고 하였다(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12-13). 올바른 관점에서의 예술에 대한 진 에드워드 비이스의 주장은 선교무용 안무가나 무용수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예술은 듣지 않아도 되는 말과는 달라서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강요시킬 수 있다(볼스토이, 1988, 72)는 볼스토이의 주장이 선교무용을 안무하고 표현하는 이들에게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용의 소통의 기능은 유형화된 표현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 형상화 되어 표상활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금 무형의 메시지가 인간의 정신에 기억되면서 활성화 된다. 이는 표현과 표현하는 사람의 태도와 책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중세시대는 철저히 기독교가 반영된 시대이나 무용의 역사에서는 중세시대를 무용의 암흑기라고 한다. 당시 그리스도 교회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지만 '교회에 속한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교제나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무관해지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춤 같은 이교도적 관습이 되었으며 결국 타락한 이교도의 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하는 춤마저 금지하게 되었다(엘 스티븐슨, 2012, 58). 엘 스티븐슨은 무용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힘이 발현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용가는 늘 주의할 기울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감정은 인간의 영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선교무용을 표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거룩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하였다(엘 스티븐슨, 2012, 115).

선교무용이 드러지는 예배의 공간에 선교무용 안무가와 무용수, 관객이 모여서 안무가와 무용수라는 복음의 메신저가 관객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달하는 함으로 무대는 곧 강대상이 된다. 긴 시간 강의를 통하여 선교무용을 하는 사람은 출구는 목회자와 같다고 했던 박순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명예교수)의 주장처럼 출구는 사명자로서의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무용예배가 드러지는 공간은 무형의 것이 형상화되어 표현되는 창조의 공간이자 소멸하는 공간이기

도 되기도 한다. 이 공간에서 선교무용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임한 기도요, 예배이자 복음전파의 수단으로 사용(김수진, 2013, 84)되어야 함으로 선교무용의 표현에 대하여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II. 선교무용 표현을 위한 내면적 요소

그리스도라는 무형의 영적인 참 지리를 신체라는 표현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선교무용에서 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지니느냐하는 것은 선교무용가의 역량이다. 이 역량에는 신체 조건, 연습시간, 테크닉 등이 포함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수진, 2013, 85). 이에 본 장에서는 선교무용을 표현하기 위해 선교무용 안무가와 무용수가 어떠한 내면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1. 비움

2016년 최수진에 의해 조사된 기독교무용이 예배 중 이루어 질 때의 방해요인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각종 내용(38.7%), 혼란이 미흡한 기독교무용수(19.8%), 화려한 헤어-메이크업-의상(18.5%), 기독교무용수의 이중성 (17.3%), 기술적 테크닉(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교무용에 대한 객관성 보다는 주관적 성향이 먼저 나타난다. 앞서 선교무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교무용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을 따져 볼 때 공식적인 집계를 찾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가운데 몸짓, 율동 등 무용적인 요소를 포함한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박순자, 2004, 84) 하여 시작되었기에 무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온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로 인해 선교무용이 가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 작품의 특성, 동작어휘 창출, 신체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메시지의 모호함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신체의 표현이 아닌 찬양의 가사에만 의존하여 찬양과 동작의 연관성이 배제되고 작품과는 상관없는 화려한 헤어, 메이크업, 의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적 만족을 느끼게 하고 보는 이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오늘날 무용 또는 무용인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 중의 하나가 "예쁘다", "아름답다" 또는 "난려하다", "뽀시하다", "균형이 잡혔다"라는 외관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무용을 하는 사람에게는서나 일반인에게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식이고 관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무용교육환경에서도 이렇이런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날씬한 사람을 선호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박순자, 2008, 48). 나아가 작품의 표현에 있어서 마땅한 것인지에 대한 숙고 없이 선택하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개인적 취향에 맞아서 선택하는 의상, 소품, 헤어, 메이크업 색상, 디자인의 고민 없이 예쁘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은 선교무용에 대한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빌립보서 3:7-9)"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교무용은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말짚을 내던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줄이다(앤 스티븐슨, 2012, 163). 따라서 “나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담습하는 것이 분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 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다음의 믿음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들을 믿어야 한다. 셋째, 세상에는 빛과 어둠, 즉 선함과 사탄, 마귀가 공존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은 사람이시기에 사랑이 충만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다섯째, 믿음의 사람은 허물과 죄를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곁손을 본받아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일곱째,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함을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덟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이 시면 그 믿음을 위하여 교회출석, 기도, 말씀묵상, 성도와의 교제 등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순환화해야 한다. 아홉째,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라면 진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열 번째, 진정한 믿음생활은 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박순자, 2004, 13-25). 즉,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아닌 나를 비워내고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는 늘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내는 비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비율의 과정은 남보다 나의 죄를 토설하는 회개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겸자 나를 비워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술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처럼 화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톨스토이, 2008, 239). 진도서의 진도서는 해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일한 것인지에(진도서 1:2-3) 대해 묻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일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린도전서 6:12)는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교회와 예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며(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23) 그리스도인다운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2. 예술

선교무용은 일반무용의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다양한 무용의 장르를 습득해서 기독교화 하는 출발점과 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묵상과 기도,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순자, 2004, 112). 앞서 밝혔듯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무용 안무가 혹은 무용수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한 영적성장, 영적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5-8)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채워

져야 할 수 있다.

프란시스 웨버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대로 부여되었고 창조성의 가치가 부여된 예술은 예술 그 자체가 있다(프란시스 A. 웨버, 김진선 옮김, 2002, 40)고 한 것처럼 이미 인간에서 부여된 그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도에 맞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면 바른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이어령, 이계철, 2012, 20).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예술의 실재와 인간성의 근거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한스 로크마허, 김원수 옮김, 2002, 29)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영적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예술은 영적 차원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줄 능력이 있는 선물이며 성경이 이를 승인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교무용의 표현을 위해서 제시되는 방향성이 어디까지 용인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통해 선별해야 하며, 표현하는 안무가나 무용수에 대한 태도, 예술권에 대한 기준을 세워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시인이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가장 새로운 사람이며 기독교인은 가장 새로운 사람, 네오칼리아 즉 새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기에(이어령, 이계철, 2012, 138) 특별히 선교무용을 하는 안무가나 무용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과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채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새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무용하는 사람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예배자의 그 본분을 마치 설교하는 목사님과 같이 춤추는 목사님처럼 되어 능력의 출몰을 추하여 하며 그것이 정도임을 강조한다(박순자, 2004, 41).

3) 공명

선교무용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살아있고 움직이고 숨쉬는 출현이며 예배에 맞춰 어떤 움직임이 전개되고 무용수들이 출현할 때 “말씀”이 체현됨을 보고 느끼게 된다(이로써 보든 이와 주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출이 되어 종교적, 영적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준다고 하였다(디 아담스, 2000, 217). 또한 톨스토이는 예술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느낌을 의식적으로 일정한 외면적인 인 후로써 타인에게 전함으로써 타인은 이 느낌에 감동되어 이를 경험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였으며(톨스토이, 1988, 106) 박순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슴에서 이끌어내 표현하는 것으로 결국 ‘사랑’이라는 미학적 종교정신을 바탕으로 참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순자, 2012, 22). 이러한 주장들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해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참 생명을 나누기 위해 안무가와 무용수가 하는 일련의 모든 표현이 곧 공명인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창조된 무용을 통한 공명은 감정전달과 설득이라는 영적인 힘을 지닌 선교무용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예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세상의 춤은 하나님이 춤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에서 타락한 것이기 때문이다(앤 스티븐슨, 2012, 112-113).

선교무용이 공명되기 위해서는 프란시스 웨버가 주장한 4가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첫째는 기교적 우수성이다. 이는 공명이 이루어지는 외적 표현의 단계에서 표현의 극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현성이 삭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용수에게 있어 기교적

우수성이 요구된다. 둘째는 정당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공명함에 있어 표현에 대한 정당성과 작품에 대한 정당성이 타당한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적인 내용과 그 작품이 전달하는 세계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선교무용 안무가와 무용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합당한 것인지와 안무가와 무용수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롯하여 기독교적 예술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넷째는 내용과 수단의 통합성으로 공명시키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과 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선교무용이 통합적으로 잘 연계하여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나 하는 것이다(프란시스 A. 웨퍼, 2002, 40). 이처럼 기교적 우수성, 정당성, 지적인 내용과 작품이 전달하는 세계관, 내용과 수단의 통합성이라는 4가지의 가치관단 기준이 얼마나 조화롭게 표현되었느냐에 따라 공명의 힘이 달라질 수 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9-20)는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에 신체를 존중하지 않고 귀여이하지 않음은 성령의 전이자 공명의 주체인 인간의 몸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이사야 43:21)', '나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인간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엘 스티븐슨, 2012, 137). 이 영적 예배인 움직임이 공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 됨을 통해 온전한 성취와 만족이 이루어지고 될 것이며 주님 앞에서의 공명을 통해 낮아짐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완전한 성취와 자유를 얻게 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교무용이 표현을 하기까지의 내면적 요소와 이를 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비움이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망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는 말씀과 같이 표현의 주체인 안무가, 무용수가 인간적인 자량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채움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기록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한다.

셋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는 공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간에 대한 값없는 사랑으로 채워져 내면적 준비가 되었다면 이를 표현을 통해서 공명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공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진리를 형성하여 공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는 비움, 채움, 공명의 순환이다. 박순자 교수는 선교무용인들

을 출주는 목회자에 비유하였다. 이는 선교무용을 할 때에만 순서를 외우고 연습을 하여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움, 채움, 공명이라는 요소의 지속적인 순환을 통해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상의 선교무용의 내면적 요소의 구조화를 통하여 선교무용을 표현함에 있어 선교무용 안무가, 무용수들이 순복음적으로 준비되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고바야시 신지 (1983). **무용미학**. 서울:현대미학사.

덕 아담스 (2006). 『종교와 무용』. 서울:당그레.

실레스터 스노우버, 리성식 옮김 (2002). **몸으로 드리는 기도**. 서울:IVP.

진 에드워드 비이스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서울:나침반.

L. N. Tolstoi, 이철 옮김 (200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범우사.

엘 스티븐슨, 유아람 옮김 (2012). **춤, 몸으로 예배하다**. 서울:예수전도단.

프란시스 A. 웨퍼, 김진선 옮김 (2002). **예술과 성경**. 서울:IVP.

박순자 (2004). **21세기 기독교적 무용의 접근**. 서울:도서출판 금광.

박순자 (2012). **성서에 의한 무용장작의 완성과 조건**. 서울:해민북스.

이여명, 이재철 (2012). **지성과 영성의 만남**. 서울:홍성사.

김수진 (2013).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선교무용의 역할, 한국기독교무용학회지, 제2권, 73-91.

김수진 (2019). 선교를 위한 실용무용의 활용방안, 제18회 한-일교류 건강체육 학술대회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체육 연구, 59-68.

최수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무용인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방안, 서울장신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